

## 고분자 화학 강좌 [ I ] (Radical 중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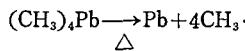
안 태 완  
이 동 호

고분자(polymer)는 작고 간단한 단량체(monomer)가 반복되어 생성되는 큰 분자이다. 고분자 물질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고무의 latex, 흰자질 그리고 셀루로즈와 같은 천연물고분자(natural polymer)와 합성고무,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와 같은 인공적인 합성고분자(synthetic polymer)가 있다.
합성고분자는 증합(polymerization), 축증합(polycondensation) 및 중부가(polyaddition)와 같은 반응에 의해서 합성된다.
본 강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재할 예정이다. [ I ] Radical중합, [ II ] 이온중합 [ III ] 공중합(Copolymerizatio) [ IV ] 개환증합(Ring-opening polymerization), 축증합 및 중부가 [ V ] 고분자의 반응.

### 1. 서 론

Radical은 화학반응중에서 한 group으로 행동하는 원자의 모임을 말하며, 보통 비공유전자(unpaired electron)를 가지고 있다.

Raneth 와 Hofeditz<sup>1)</sup>는 tetramethyllead 을 사용한 실험에서 처음으로 methyl radical의 존재를 밝히고 그것의 반감기(half-life time)가 0.006초 정도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.



그후 Kharasch 와 Mayo<sup>2)</sup>는 과산화수소의 존재하에서 Olefin 에 HBr 을 부가시킨 결과 Markownikoff 법칙에 어긋난 화합물을 합성하였고, 이 이상 부가의 반응기구를 radical로써 설명하여 해결하였다.

이와 같이 radical은 흥미로운 유기반응을 유도하며, 따라서 고분자합성에 유익한 역할을 하므로 여기에서는 radical에 의해 일어나는 중합반응에 대하여서 살하고자 한다.

\*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과 부교수  
\*\*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과 대학원

### 2. Radical의 생성

Radical은 일반적으로 ① 유기화합물의 열분해(thermal decomposition), ② 광화학적 분해(photocchemical decomposition), ③ 하전된 관(discharge tube)에서의 반응, ④ 유기 할로젠화물과 금속과의 반응, ⑤ 산화환원반응(Redox reaction)등에 의하여 생성되나<sup>3)</sup>, 여기에서는 중합반응에 많이 쓰이는 과산화물과 azo화합물의 열분해, 산화환원반응 및 이의의 특수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.

#### 2-1. 과산화물

과산화물도 분해되는 데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(Activation energy)는 각각 다르며, 대체로 50°C 이상에서 천천히 분해하여 radical을 형성한다<sup>4)</sup>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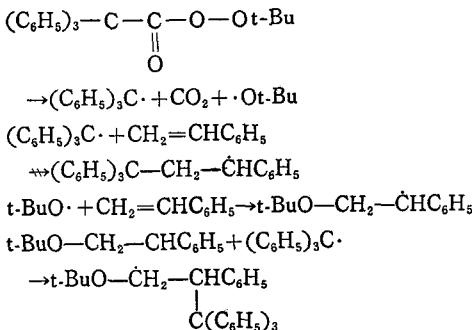


여러 과산화물이 분해되는 데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와 생성된 radical의 반감기가 1시간이 되는 온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<sup>5)</sup>.

Ea (Kcal/mole)	반감기 1시간 의 온도(°C)
$C_6H_5-C\begin{matrix}    \\ O \end{matrix}-O-O-C\begin{matrix}    \\ O \end{matrix}-C_6H_5$	
$\rightarrow C_6H_5-C\begin{matrix}    \\ O \end{matrix}-O \cdot + \cdot O-C\begin{matrix}    \\ O \end{matrix}-C_6H_5$	30 95
$C_6H_5-C\begin{matrix}    \\ O \end{matrix}-O-O-C(CH_3)_3$	
$\rightarrow C_6H_5-C\begin{matrix}    \\ O \end{matrix}-O \cdot + \cdot O-C(CH_3)_3$	34 125
$(CH_3)_3C-O-O-C(CH_3)_3$	
$\rightarrow (CH_3)_3C-O \cdot + \cdot O-C(CH_3)_3$	37 1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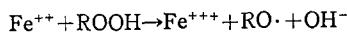
생성된 radical이 안정할 수록 개시제(initiator)의 분해속도가 빨라지고, 중합반응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Radical의 반감기가 1시간 정도 되는 것이 보통 적당하다. 고로 중합반응에 있어서는 위의 3 가지 보기에서

중합온도에 대응하는 적당한 과산화물을 선택해야 한다. 그러나, radical이 생성된다 하여도 전부 중합반응의 개시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. 예를 들면, triphenyl-t-butyl peracetic acid에서 분해에 의해 생성된 2개의 radical 중에, t-butyl radical은 반응성이 풍부하여 vinyl 단량체와 부가하여 중합을 일으키기 쉬우나, triphenyl radical은 극히 안정하여 보통의 vinyl 단량체와는 부가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한번 radical이 결합하면 2개의 radical이 소멸하게 된다.



## 2-2. 산화환원계(Redox system)

과산화물에 산화환원이 용이한 금속이온을 더한 것을 사용하면 radical의 생성 온도가 낮아  $-20^{\circ}\text{C}$ 에서 도 중합이 일어난다. 이것은 과산화물에 대하여 제 1 철이온(ferrous ion)이 환원작용을 하여 Harber-Weiss mechanism에 따라 radical이 생성되기 때문이다<sup>6)</sup>.



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산화환원계가 알려져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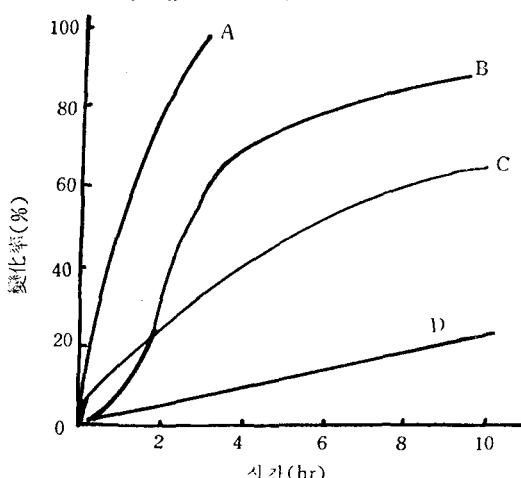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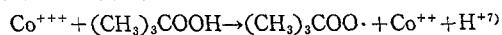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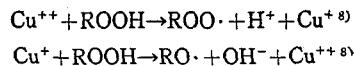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Styrene과 Butadiene의 유체공중합(emulsion copolymerization)의 속도에 대한 각종 철 산화환원계과사화물의 영향(40°C)<sup>9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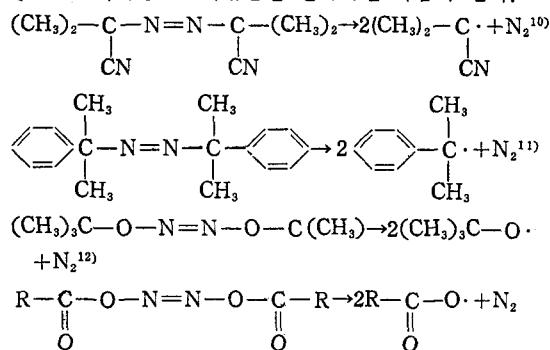
A; Cumene hydroperoxide      B; Dibenzyl peroxide  
C; *t*-Butyl hydroperoxide      D; Potassium peroxide



이와 같은 산화환원계에 사용된 과산화물의 종류에 따라 중합되는 변화율이 다르다는 것을 그림 1에서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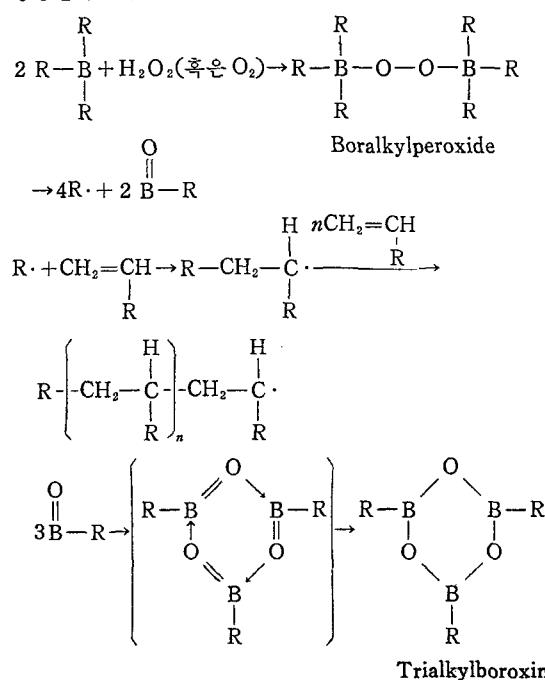
### 2—3. Azo 화합물

과산화물 뿐만 아니라 azo 화합물, 즉 azo-bis-isobutyl-onitrile(AIBN)도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서 radical을 생성한다. 이러한 azo 화합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.



## 2-4. 특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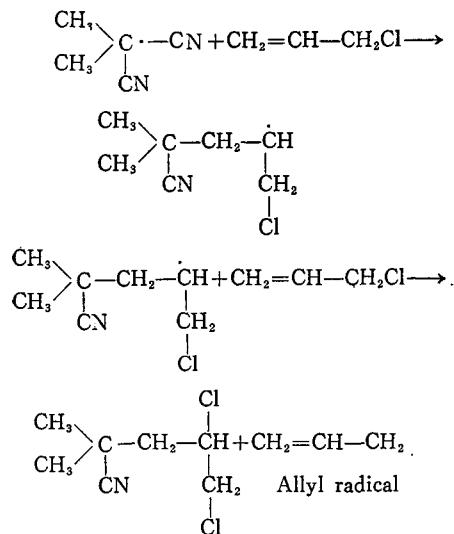
현재에는, boralkyl(예를 들면 triethylborane이나 tributylborane)을  $H_2O_2$ 나  $O_2$ 의 존재하에서 사용하여 저온에서 radical 중합을 일으킬 수 있으며, 그때 생성되는 alkyl radical은 다음과 같은 반응기구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<sup>13)</sup>.



### 3. 중합(Polymerization)

이중결합을 가진 화합물을 주로 중합반응을 일으킨다, 그 중에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있다. 그 이유로는 ① 중합에 필요한 활성에너지가 너무 커서 중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, ② 입체방해(Steric hindrance)에 의해 중합이 안되는 경우(예, trichlorostyrene), ③ 자동방지(Auto-inhibition)의 현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.

자동방지는 allyl 화합물의 중합에서 볼 수 있듯이, 생성된 allyl radical이 공명현상(Resonance)에 의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중합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.<sup>14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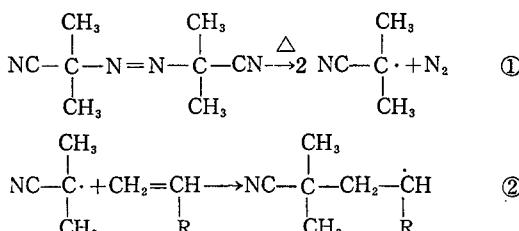


$\text{CH}_2=\text{CH---CH}_2 \longleftrightarrow \dot{\text{C}}\text{H}_2-\text{CH}=\text{CH}_2 \longleftrightarrow \text{CH}_2=\text{CH---CH}_2$   
이와 같은 자동방지는 propylene, isobutylene, vinyl ether,  $\alpha$ -methylstyrene 등과 같은 단량체에서도 볼 수 있다.<sup>15)</sup>

중합반응은 보통 개시반응, 성장반응, 정지반응의 3 가지 반응으로 표시 할 수 있다.

#### 3-1 개시반응(Initi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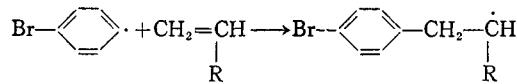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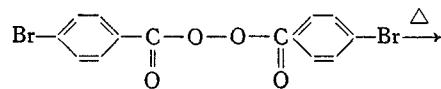
개시반응은 ① 개시제의 분해, ② 생성된 radical에 첫 번째의 단량체가 부가되는 것과 같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.



②의 단계에서, 개시제로 부터 생성된 radical이 단량체와 부가한다는 것을 증명한 방법으로는 다음 2 가지가 있다.

##### a) 분석법

개시제로 써 p-bromobenzoylperoxide를 쓴다면, 다음과 같은 반응기구에 의하여 생성된 중합체에 bromine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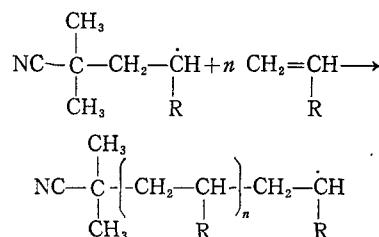
생성된 중합체를 분석한 결과, 중합체에 bromine이 존재하며 그 함량은 중합도(Degree of Polymerization)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았다.<sup>16)</sup>

##### b) 동위원소(Isotope) 법

AIBN에서 azo기와 결합한 탄소로써 C<sup>14</sup>를 사용하여 중합한 결과, 생성된 중합체에서 C<sup>14</sup>를 발견할 수 있었다.<sup>17)</sup> 고로, radical에 단량체가 부가하여 중합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이 확실하다.

#### 3-2 성장반응(Propagation)

개시반응에서 생긴 radical에 수개의 단량체가 부가되어 큰 분자가 되는 단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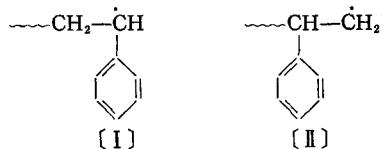


##### 3-2-1. 부가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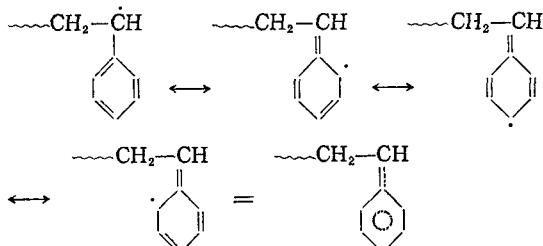
단량체가 부가하는 방법은 ① head-to-tail 부가, ② head-to-head (혹은 tail-to-tail)부가, ③ 불규칙한 혼합부가 등이 있을 수 있다. 위의 부가방법 중 보통의 중합조건에서는 주로 head-to-tail 부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. 그 이유를 styrene의 경우에서 본다면,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.<sup>18)</sup>

##### a) 공명 안정화(Resonance stabilization)

Styrene이 radical로 존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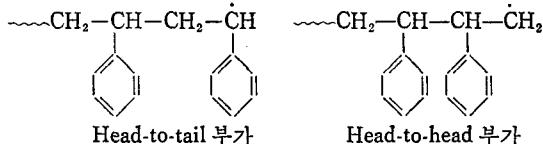


(I)의 radical 이 (II)의 것보다 더 안정하여 head-to-tail 부가가 우세한데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공명현상을 가지기 때문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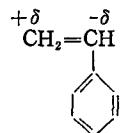
#### b) 입체방해(Steric hindrance)

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, head-to-tail 부가의 경우가 head-to-head 부가 때보다 입체방해가 작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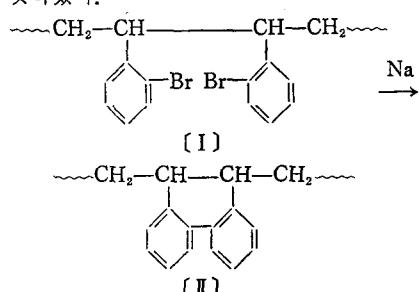


#### c) 극성효과(Polarizing effect)

styrene 단량체는 다음과 같이 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head-to-tail 부가가 우세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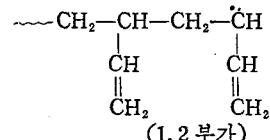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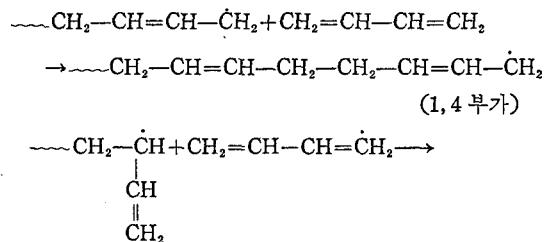
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, 성장반응은 주로 head-to-tail 부가에 의해 일어나는데, 이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Marvel 과 Moon<sup>19)</sup>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. 즉, ortho-bromostyrene의 중합 시 Head-to-head 부가가 일어난다면 (I)과 같은 중합체가 생길 것이며, 이것은 alkali 용액에 의해 (II)의 중합체가 생겨야 할 것인데, 실제의 실험에서는 (II)를 발견하지 못하였다.



이와같은 부가로 생성된 중합체에 있어서, C—C의 결합이 회전할 수 있으므로 입체규칙적(stereoregular =stereospecific) 중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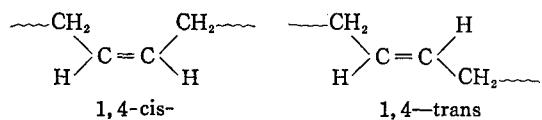
#### 3-2-2. Butadiene의 성장반응

Butadiene은 다음과 같이 1,4 부가와 1,2 부가에 의해 성장한다.<sup>20)</sup>



(1,2 부가)

그리고 1,4 부가에 의해 형성된 중합체는 cis-나 trans-의 구조(conformation)를 가질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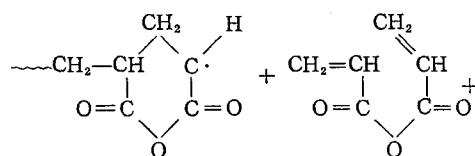
1,4-cis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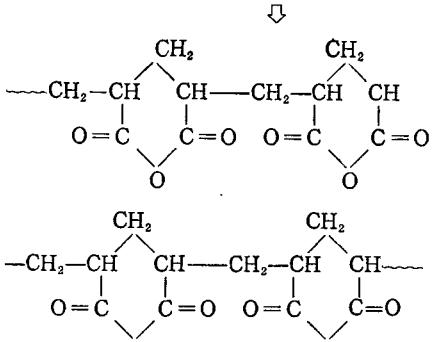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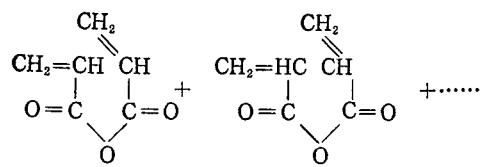
1,4-trans

보통 radical 중합에 의해서는 1,4 부가와 1,2 부가가 혼합된 중합체를 얻을 수 있으나, 이온중합을 하면 모두 1,4 부가나 1,2 부가를 한 중합체를 얻을 수 있다.<sup>21)</sup> 즉, THF(Tetrahydrofuran)에서 alkaliorganic 화합물, 예를 들어 phenyllithium을 사용하면 1,2 중합체를 얻을 수 있으며, paraffin 계 탄화수소, 예로서 heptane을 용매로 쓰고 lithium이나 phenyllithium을 사용하여 1,4 중합체를 합성시킬 수 있다. 순수한 결정성의 1,2-polybutadiene은 chromhexacarbonyl과 aluminumtriethyl을 혼합개시제(complex initiator)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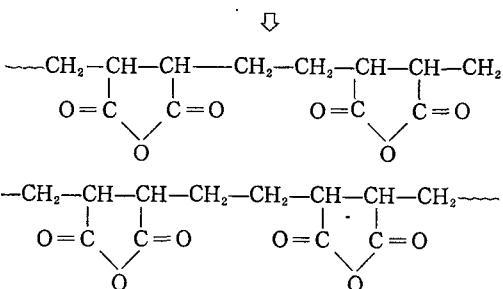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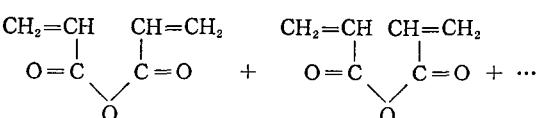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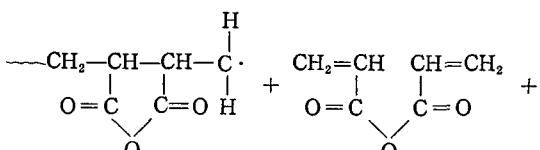
#### 3-2-3. 특수한 성장반응

Acrylacid anhydride의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, 두개의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5—혹은 6—환(Ring)을 만들면서 중합이 진행된다. 이러한 중합방법을 환형중합(Cyclic polymerization)이라 한다.<sup>22)</sup>





혹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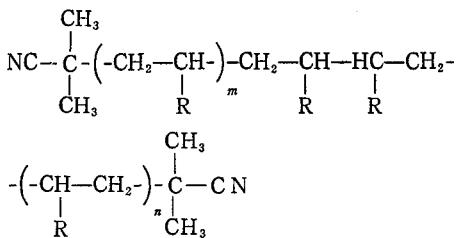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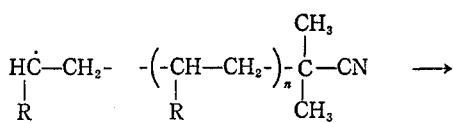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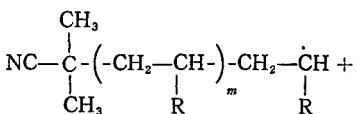


### 3-3. 정지반응(Termination)

정지반응은 성장반응에 의해 자란 중합체의 radical이 ①결합, ②부동변화등에 의하여 radical이 없어지는 단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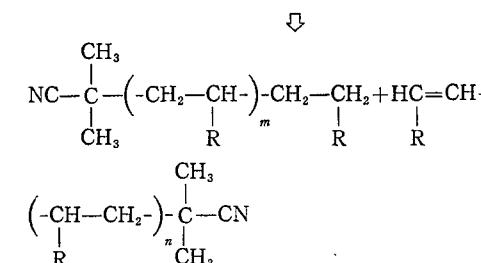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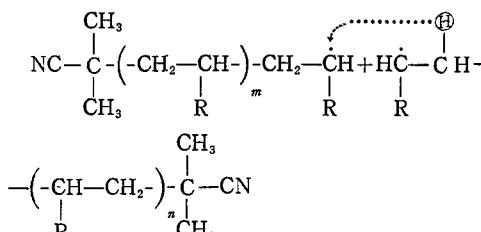
#### 3-3-1. 결합(Combination)

이것은 2개의 radical이 결합하여 성장반응이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


### 3-3-2. 부동변화(Disproportionation)

2개의 중합체중에서, 한 중합체에 있는 수소와 같은 원자가 다른 중합체의 radical에 부가되어 2개의 radical이 소모되는 반응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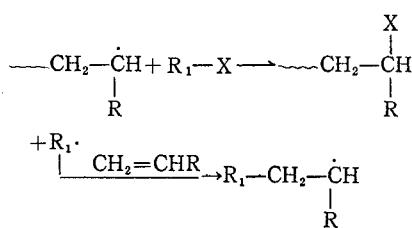
정지반응이 결합 혹은 부동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중합온도와 단량체의 종류에 의존된다. 즉, 위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, 수소원자가 이동하여 부동변화가 일어나므로 중합온도가 높을수록 부동변화가 잘 일어난다. 그리고 styrene은 60~70°C에서 부동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결합에 의해 정지반응이 되나<sup>23</sup>, MMA(Methylmethacrylate)는 이 온도에서 주로 부동변화가 일어난다.<sup>24)</sup>

정지반응이 결합 혹은 부동변화에 의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험적 방법은 중합도 측정과 말단기 분석(End group analysis)에 의해 중합체내에 있는 개시제 분자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. 만약 결합에 의해 정지반응이 일어났다면, 앞의 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, 중합체내에 2개의 개시제 분자가 존재할 것이며, 부동변화에 의해 정지된 중합체는 한개만의 개시제 분자를

가지고 있을 것이다.

#### 3-4. 사슬이동(Chain transfer)

중합반응은 이상 설명한 3가지 이외에 사슬이동 반응도 일어난다. 즉, 자라는 중합체의 radical에 다른 분자의 한 원자가 부가하여 중합체의 radical은 소모되고, 다른 분자에 다시 radical을 형성하여 중합반응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.<sup>25)</sup>



이와같이 radical이 한 중합체에서 다른 분자로 이동하는 것을 사슬이동이라고 하며, ①개시제로의 사슬<sup>26)</sup> 이동, ②단량체로의 사슬이동, ③용매로의 사슬이동, ④중합체로의 사슬이동등이 있는데, 여기서는 용매로의 사슬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한다.

##### 3-4-1. 용매로의 사슬이동(Chain transfer to solvent)

중합체의 radical이 용매와 반응하여 자라는 중합체의 성장이 정지되고 radical이 용매 분자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, 그 크기는 사슬이동 상수(chain transfer constant)  $C_t$ 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$$C_t = \frac{k_{tr,s}}{k_p}$$

윗식에서  $k_{tr,s}$ 는 용매로의 사슬이동 속도상수(chain transfer rate constant)를 말하며,  $k_p$ 는 성장 속도상수(propagation rate constant)를 나타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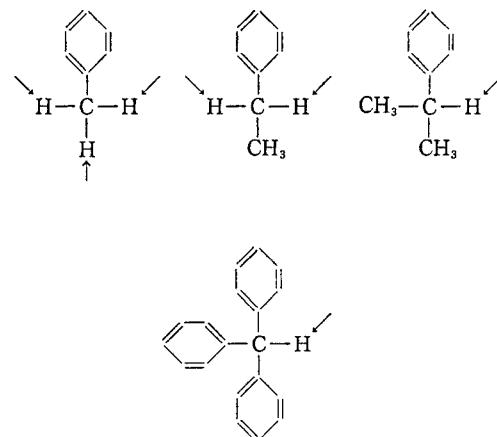
이와같은  $C_t$ 는 ①용매의 종류, ②radical의 종류,

표 1. 용매로의 사슬이동상수,  $C_t \times 10^5$

용 매	$-\text{CH}_2-\overset{\cdot}{\underset{\text{C}_6\text{H}_5}{\text{CH}}}$			$\text{CH}_2$	$-\text{CH}_2-\overset{\cdot}{\underset{\text{COOCH}_3}{\text{CH}}}$
	60°C	80°C	100°C	$\text{CH}_3$	
Benzene	0.18	0.6	1.6	0.75	—
Cyclohexane	0.24	0.66	1.6	1.0	920
Toluene	1.25	3.1	6.5	5.2	—
Ethylbenzene	6.7	10.8	16.2	13.5	—
Cumene	8.2	13.0	20.0	19.0	—
Triphenylmethane	35	—	80	—	—
Carbon tetrachloride	900	1300	1800	24	1000

③온도등에 의존한다는 것을 표 1에서 알 수 있다.

Benzene, toluene, ethylbenzene, cumene, triphenylmethane에서 볼 수 있듯이, 수소의 이탈성이 클수록  $C_t$ 도 증가한다.



#### 3-4-2. 조절제(Regulator)

사슬이동이 일어나면 성장반응이 정지하므로 사슬이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중합도는 낮아진다. 즉, 사슬이동 반응이 큰 물질을 사용하여 중합도를 낮출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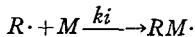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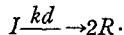
이와같이, 사슬이동이 일어날수록 중합도가 감소하기 때문에, 중합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고의로 mercaptan  $\text{CCl}_4$ , amine 등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, 이때 넣는 첨가물을 조절제라고 한다.

#### 4. 반응속도론(Kinetics)

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, 중합의 기본단계는 개시반응, 성장반응, 정지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응속도론적으로 고찰하여 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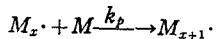
##### 4-1. 반응속도와 개시제 및 단량체의 농도와의 관계

개시반응은 ①개시제가 분해하여 radical을 생성하는 단계와 ②radical에 첫번째 단량체가 부가하는 단계로 진행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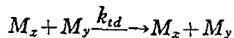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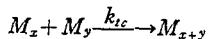


위에서  $I$ 는 개시제를 말하며,  $M$ 은 단량체를 나타낸다. 또  $k_d$ 는 개시제의 분해 속도상수이고  $k_i$ 는 단량체가 부가되는 속도상수이다.

그리고 성장반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, 여기에서  $k_p$ 는 성장반응 속도상수인데 이 값은 중합도가 적어도 3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용매의 특성과 사슬길이(Chain length)에 무관하다.<sup>27)</sup>



또 정지반응은 결합과 부동변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.



여기서  $k_{tc}$ 는 결합반응의 속도상수이고  $k_{td}$ 는 부동변화의 속도상수이다.

각 단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응기구로 표시하여 반응속도론적 처리를 하여보자.

처음 부가된 단량체 radical ( $M\cdot$ )의 형성속도  $R_i$ 는 다음과 같다.

$$R_i = \frac{d[M\cdot]}{dt} \quad (1.1)$$

만약 각 개시제의 분자에서 생성된 모든 radical이 단량체의 분자와 반응한다면, 개시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아 된다.

$$R_i = 2k_d[I] \quad (1.2)$$

그러나, 보통 개시제의 분해에 의해 형성된 radical은 모두 단량체 외 반응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.

$$R_i = f \cdot 2k_d[I] \quad (1.3)$$

(1.3)에서의  $f$ 는 단량체와 결합하는 radical의 부분(fraction), 즉 개시제 효율(initiator efficiency)이다.

성장속도는 다음과 같으며,

$$R_p = -\frac{d[M]}{dt} = k_p[M][M\cdot] \quad (1.4)$$

정지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.

$$R_i = -\frac{d[M\cdot]}{dt} = 2k_t[M\cdot]^2 \quad (1.5)$$

(1.5)에서  $[M\cdot]$ 은 모든 사슬 radical의 농도이다.

시간이 지나 반응이 정상상태(steady state)에 도달

하면, radical의 형성속도와 정지반응에 의한 radical의 소멸속도는 같게 된다.

$$R_i = R_s \quad (1.6)$$

$$\text{즉 } 2k_t[M\cdot]^2 = f \cdot 2k_d[I] \quad (1.7)$$

그러므로, 어떤 순간에서의 radical 농도는 다음과 같다.

$$[M\cdot] = \left( \frac{f \cdot k_d}{k_t} [I] \right)^{1/2} \quad (1.8)$$

성장반응 속도는 (1.8)을 (1.4)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.

$$R_p = k_p \left( \frac{f \cdot k_d}{k_t} [I] \right)^{1/2} [M] \quad (1.9)$$

즉, 성장반응 속도로 표시된 중합속도는 단량체의 농도와 개시제 농도의 자승근에 비례한다. 이러한 사실은 그림 2와 표 2에서 명백히 알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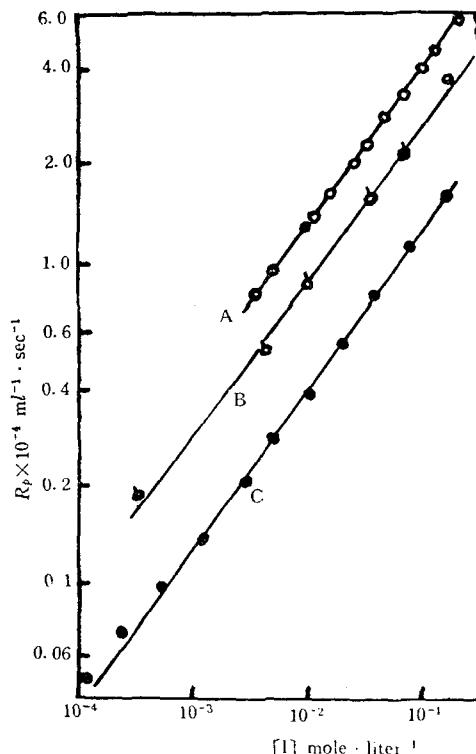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개시제 농도  $[I]$ 에 대한 초기중합속도  $R_p$ 의 log-log 그림표

A; AIBN 을 사용한  $50^{\circ}\text{C}$ 에서의 MMA<sup>28)</sup>

B; benzoyl peroxide 를 사용한  $50^{\circ}\text{C}$ 에서의 MMA<sup>29)</sup>

C; benzoyl peroxide 를 사용한  $60^{\circ}\text{C}$ 에서의 styrene<sup>30)</sup>

그림 2에서의 직선은 기울기가  $1/2$ 이 되도록 이론적으로 그은 것이다. 그러나, 실현치와 잘 일치된다. 그러나,  $90^{\circ}\text{C}$ 의 styrene 중합에 있어서 낮은 benzoyl peroxide의 농도에서 생기는 편차는 열개시(thermal initiation)

표 2. 단량체 농도에 따른 초기 중합속도의 변화

$[M]$ mole/l	$[I] \times 10^3$ mole/l	초기 속도 $R_p \times 10^4$ mol/l·sec	$R_p/[I]^{1/2}[M]$ $\times 10^4$
1) Benzoyl peroxide를 개시제로 한 benzene 중에서의 MMA ( $50^\circ\text{C}$ ) <sup>31)</sup>			
9.44	41.3	1.66	0.87
7.55	41.3	1.31	0.86
5.66	41.3	0.972	0.85
3.78	41.3	0.674	0.88
1.89	41.3	0.334	0.81
0.944	41.3	0.153	0.80
2) Benzoyl peroxide를 개시제로 한 Benzene 중에서의 Styrene ( $60^\circ\text{C}$ ) <sup>30)</sup>			
8.35	4.00	0.255	0.48
5.845	4.00	0.1734	0.47
3.339	4.00	0.0930	0.44
0.835	4.00	0.01855	0.35
0.418	4.00	0.00838	0.32

가 동시에 일어나서 작용하기 때문이다.

표 2에서 단량체 농도가 증가할수록 중합속도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며, 마지막 열의 값은 거의 일정하여 (1.9)의 상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.

#### 4-2. 반응속도론적 사슬길이(Kinetic chain length)

반응속도론적 사슬길이  $\nu$ 는 개시반응에서부터 정지반응까지 활동중심(Reactive center)과 반응하는 단량체의 평균수이며, 개시반응속도  $R_i$ 에 대한 성장반응속도  $R_p$ 의 비로 주어진다. 정상상태에서는  $R_i$ 가 정지반응 속도  $R_s$ 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.

$$\nu = \frac{R_p}{R_i} = \frac{R_p}{R_s} \quad (1.10)$$

(1.4)와 (1.5)를 (1.10)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

$$\nu = \frac{k_p[M][M]}{2k_t(M \cdot)^2} = \frac{k_p[M]}{2kt(M \cdot)} \quad (1.11)$$

또 (1.4)에서 다음을 알 수 있다.

$$[M \cdot] = \frac{R_p}{k_p[M]} \quad (1.12)$$

(1.12)를 (1.11)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.

$$\nu = \frac{k_p^2 [M]^2}{2kt R_p} \quad (1.13)$$

즉, 단량체 농도가 일정할 경우에 반응속도론적, 사슬길이는 중합속도에 반비례한다.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합속도도 증가하므로 중합체의 분자량은 감소한다.

여기서 (1.13)의  $R_p$  대신에 (1.9)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, 중합체의 분자량은 단량체의 농도가 클수록 증가하며 개시제의 농도가 클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$$\nu = \frac{k_p}{2(f \cdot k_d \cdot k_t)^{1/2}} \cdot \frac{[M]}{[I]^{1/2}} \quad (1.14)$$

그러므로 중합체의 분자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량체의 농도를 높이는 반면에 개시제의 농도는 될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.

#### 참 고 문 헌

- 1). F. A. Paneth and W. Hofeditz, *Ber.*, 62, 1335 (1929)
- 2). M. S. Kharasch, H. Engelmann and F. R. Mayo, *J. Org. Chem.*, 2, 288 (1937)
- 3). D. A. Smith, "Addition polymers" p. 17, Butterworths, London, 1968
- 4). C. G. Swain, W. H. Stockmayer and J. T. Clarke, *J. Am. Chem. Soc.*, 72, 5426 (1950)  
C. E. H. Bawn and S. F. Mellish, *Trans Faraday Soc.*, 47, 1216 (1951)
- 5). 淳宏, 化學と工業, p. 99, 第22卷, 第6號, 1969
- 6). J. H. Baxendale, S. Bywater and M. G. Evans, *J. Polymer Sci.*, 1, 237 (1946)
- 7). D. J. Cram and G. S. Hammond, "Organic Chemistry", p. 517, McGraw-Hill, New York, 1964
- 8). W. Kern, *Ang. Chem.*, 61, 471 (1949)  
*Mak. Chem.*, 15, 15 (1955)
- 9). G. E. Hulse and E. J. Vandenburg, *Ind. Engng Chem.*, 40, 936 (1948)
- 10). F. M. Lewis and M. S. Mathieson *J. Am. Chem. Soc.*, 71, 747 (1949)
- 11). P. D. Bartlett, *J. Am. Chem. Soc.*, 88, 137 (1966)
- 12). T. G. Taylor, *Tetrahedron Letters*, 6163 (1996)
- 13). K. H. Krause, *Kunststoff-Rundschau*, 6, 139 (1959); J. Furukawa and T. Tsuruta, *J. Polymer Sci.*, 28, 227 (1958)
- 14). P. D. Bartlett and R. Altschul, *J. Am. Chem. Soc.*, 67, 812, 816, (1945)
- 15). B. Vollmert, "B. Vollmert, "Grundriss der makromolekularen Chemie", p. 58, Springer-Verlag, Berlin, 1962
- 16). S. G. Cohen, *J. Polymer Sci.*, 2, 511 (1947)
- 17). L. M. Arnett and J. H. Peterson, *J. Am. Chem. Soc.*, 74, 2031 (1952)